

이정호 감독 이적 없던 일로... 광주FC '정호볼' 계속된다



노동일 대표이사와 만남서 잔류 의사
전북현대 새 감독 선임 과정서 언급돼 논란
'공격 축구'로 지난해 리그1 '3위' 최고 성적
2년 연속 리그 잔류...ACLE서 맹활약
다음달 3일 태국서 전훈...본격 시즌 준비

광주FC의 '정호볼'은 계속된다. 광주FC의 이정호 감독이 '이적설'을 뒤로하고 2025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2일 노동일 대표이사와 만남을 갖고, 내년 시즌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23일 이정호 감독은 다시 한번 노동일 대표를 찾아 '잔류' 의사를 전달했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FC에 남겠다는 뜻을 확실히 말씀드렸다. 계획대로 선수단을 꾸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의 거취 논란을 종결시켰다. 이정호 감독의 움직임은 최근 K리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올 시즌 강등권에서 '전통의 강호' 자존심을 구긴 전북현대가 새 사령탑을 찾는 과정에서 이정호 감독의 이름이 언급됐다. 남다른 카리스마와 자신만의 '정호볼'로 광주FC를 새로운 팀으로 변신시킨 이정호 감독은 전북 구단이나 팬들이 충분히 욕심낼 수 있는 지도자다. 큰 꿈을 꾸는 이정호 감독에게 시민구단 광주FC의 한계도 확실해 보였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FC 구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이끈 지도자가 됐지만, 구단 재정건전화 문제로 여름 이적 시장을 빈손으로 보냈다. 오히려 '에이스' 엄지성이 스완지시티로 떠나는 등 이정호 감독은 선수 고민 속리그와 아챔 일정을 병행하느라 힘든 2024시즌을 보내야 했다. 팀 안팎으로 이정호 감독을 고민하게 하는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광주FC를 지키기로 했다. 2021년 12월 광주FC의 7대 감독으로 선임된 이정호 감독은 광주 축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정호 감독은 사령탑 첫해였던 2022시즌 광주FC를 K리그2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우승 감독'이 됐다. 2023시즌에는 K리그1 무대에서 통하는 자신의 축구를 선보였다. 그는 이정호표 공격 축구로 정규시즌 3위라는 구단 최고 순위를 이끌고,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다.

광주FC의 거침없는 축구에 매료된 시민들이 관중석을 가득 채우며, '야구 도시' 광주에 축구 바람이 불었다. 올 시즌에는 리그, 코리아컵, ACLE 일정까지 동시에 소화하는 살인적인 일정 탓에 목표했던 파이널A는 이루지 못했지만 2년 연속 K리그1 잔류를 이뤘다. 무엇보다 아시아 무대에서 '광주'를 알렸다. 광주FC는 일본 요코하마와 ACLE 데뷔전에서 7골을 몰아넣으며 7-3 대승을 거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연속 행진을 달린 광주는 현재 4승 1무 1패(승점 13)로 동아시아그룹 2위에 자리하고 있다. K리그 팀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광주FC는 16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광주FC는 코리아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구단 최고의 성적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은 사령탑의 힘을 보여주면서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그만큼 이정호 감독의 잔류 여부는 광주FC 2025시즌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FC 팬들의 기쁨을 줄이게 했던 이적설 논란을 뒤로 하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광주를 지키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갈 길은 멀다. 내달 3일 태국 코사무이로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앞두고, 선수단 구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 '정호볼' 핵심 선수들의 이적 움직임 속에 이견희와 박태준 등 상무 입대를 앞둔 이들도 있다. 할 일은 산적했지만 일단 광주는 예산과 감독이라는 급한 불은 꺼졌다. 노동일 대표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광주시의회에서 삭감했던 ACLE 추가 지원 예산 10억원을 되살렸고, 이정호 감독 체제도 유지할 수 있게 된 만큼 광주FC 팬들은 기대감으로 2025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홀인원에도...우즈 부자, 아깝다! 우승



타이거 우즈(왼쪽)가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 최종 2라운드 4번홀에서 아들 찰리가 홀인원을 기록하자 기뻐하고 있다.

가족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 준우승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아들 찰리와 출전한 '가족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총상금 108만5000달러)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즈 부자(父子)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 최종 2라운드에서 홀인원 하나와 버디 13개를 쓸어 담으며 15언더파 57타를 합작했다. 최종 합계 28언더파 116타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제이슨 부자와 동타를 이룬 우즈 팀은 1차 연장전에서 이글을 잡아낸 랑거 팀에 우승을 내줬다. PNC 챔피언십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의 이벤트 대회로, 프로 선수와 가족이 2인 1조를 이뤄 36홀 스크램블 방식(한 팀의 두 명이 각자 티샷한 뒤 그중 하나를 골라 그 자리에서 두 명 모두 다음 샷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한다. 2020년부터 이 대회에 찰리와 함께 출전한 우즈

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준우승을 기록했다. 2009년 2월생으로 곧 16살이 되는 찰리는 이날 4번 홀(파3·176야드)에서 첫 홀인원을 작성해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찰리가 7번 아이언으로 친 티 샷이 그린에서 몇 번 바운드되더니 홀로 굴러 들어갔다. 찰리는 "완벽한 7번 아이언 샷이었다. 그냥 쳤을 뿐"이라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즈는 "미칠 지경이었다. 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즐겼고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일"이라면서 "찰리가 첫 홀인원을 기록했고, 샘(딸)이 가방을 뒀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뿐이었다. 이 대회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유대감과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우즈는 "찰리는 경기의 모든 측면에서 더 나아졌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놀랍고, 한계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우즈 부자는 찰리의 홀인원 덕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으나 이후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 18번 홀(파5)까지 랑거 부자와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연장전에서 패했다. 18번 홀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전에서 랑거가 5m 남짓한 이글 퍼트를 떨어뜨리면서 우승팀이 가려졌다. 랑거는 현재 24세인 막내아들 제이슨과 지난해 이어 우승을 합작, 대회 2연패와 더불어 통산 6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랑거는 6번의 우승 중 4승(2014·2019·2023·2024년)을 제이슨과 합작했고, 다른 2승(2005·2006년)은 현재 34세인 아들 슈테판과 이뤘다. 비제이 싱(피지)과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 데이비드 듀발(미국) 부자가 공동 3위(23언더파 121타)에 올랐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 테니스 메이저대회 호주오픈 챔피언 출신 아버지 페트르는 공동 8위(20언더파 124타)로 마쳤다. /연필뉴스

"품새 등 새 프로그램 개발·대회 유치 최선"

윤용철 신임 광주시태권도협회장 "생활스포츠로 자리잡게 할 것"

신임 광주시태권도협회장으로 당선된 윤용철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이 "태권도 저변 확대와 협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단국 후보로 등극한 윤용철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윤 당선인은 "학령 인구 감소로 태권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품새, 격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대회를 유치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소년의 인성 함양과 어르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태권도를 전 세대가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태권도 교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동·서·남·북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대 체육대학을 졸업한 윤 당선인은 전국체



왼쪽부터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장, 윤용철 당선인, 윤판석 광주시태권도협회 명예회장. <광주시태권도협회 제공>

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한 엘리트 태권인 출신으로 송원중 교장과 광주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정통 태권인으로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전남드래곤즈, 훈훈한 '기부챗린지'

광양 장애인복지관에 390만원·햇살학교 초청 식사 제공

전남드래곤즈가 '희망숲! 나눔골! 기부챗린지'를 통해 연말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남은 최근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희망숲! 나눔골! 기부챗린지'의 두 번째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희망숲! 나눔골! 기부챗린지'는 홈경기에서 나온 1골당 10만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적립해 연

말에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이벤트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은 이날 장애인의 축구 지원을 위해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 39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인 '광양시 햇살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